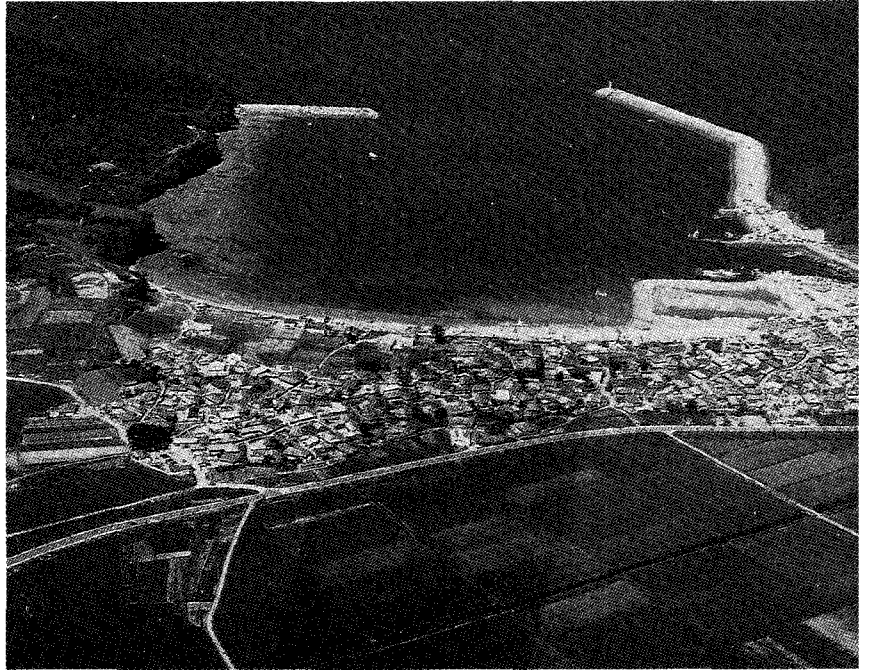


관광지로 발돋움한 格浦港

‘地域發展의 求心’ 어민 일깨워 民怨 무마

協議會구성 懸案 함께 의논



姜 集 熙

〈(합)大韓土建社 格浦港 現場所長〉

우 리 나라 서해안의 대
부분 지역은 전형적
인 리아스식 해안으
로 지반 형태가 간사지로 이
루어져 있다. 또한 수심이 얕
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어
항으로서 입지적 조건을 갖추

고 있는 항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격포항은 지형 형태가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내
평균 수심이 4m로 천연적인
양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격포항은 일찌기 조선조 중엽

명종 때 격포진을 설치하여 수
군(水軍)참사가 주둔 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 남쪽에는 해발 274
m의 봉화봉이 위치하여 외적
이 침범하거나 나라에 급변이
있을 때는 이 곳에서 봉화를

올려 개야도를 거쳐 한양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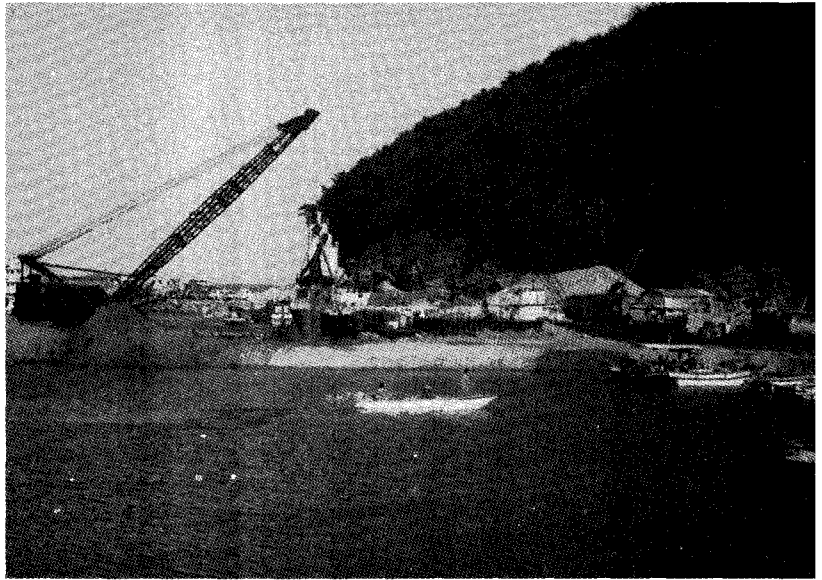
또한 북쪽으로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 닭이봉이 있고, 바로 아래에는 돌로 만든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모양의 채석강이 오묘한 신비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조 말기 쏼로순찰사 '이석우'라는 분은 이 곳을 방문하였을 때 "만인이 편안하고 활기있게 살터"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채석강은 학생들의 견학지와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주변 3km 간격으로 격포해수욕장을 위시하여, 변산, 고사포, 상록해수욕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적벽강, 수성당을 비롯 후박나무 군락지가 있어 관광명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또한 내변산 외변산, 변산 8경 및 내소사등과 연결된 격포항은 사시사철 수많은 관광 인파로 붐비고 있으며, 특히 외해쪽으로 웅장하고 시원스럽게 건설된 북방파제 600m는 유일한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있어 어항관광단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全北유일의 1종어항으로 면모 갖춰

격포항은 87년도에 수산청



1종어항으로 승격,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되어 92년 말 현재 북방파제 610m가 완공되었고, 남방파제 380m중 160m가 축조되었으며, 또 물양장 320m중 100m가 시설되어 전체공정 약 75%가 진척되어 어느 정도 어항으로서 기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방파제 공사가 착수되기 전인 87년 당시만 해도 어항시설이 전무하여 외래어선의 이용이 빈약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태·폭풍우시 지방어선이 인근 위도항이나 군산항까지 피항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항내 정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양륙시설

도 갖추고 있어 황금어장인 칠산 어장과 고군산열도 어장에서 조업 후, 귀항하는 어선의 태반이 원거리에 위치한 군산항이나 목포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비교적 어가가 좋고 근거리에 위치한 격포항을 이용하게 되어 92년말 현재 외래어선 이용은 연간 21,500여척이며, 지원어선은 122척으로 증가했다.

어획량은 1,450톤 규모로 위판고가 무려 48억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서해 활어 집산지로도 유명해지고 있다.

또한 어항시설이 없었을 때는 여객선 이용이 불가능하여 곰소, 위도, 왕등도를 운항하던 여객선이 항로를 격포로 바꾸어 1일 2회 운행하고 있

으며, 이밖에도 경비정을 비롯 농협 화물선과 유람선, 모타보트, 요트등이 격포항을 이용하고 있어 언제나 어항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

격포항의 개발에 따라 어항 공사가 완공 단계에 있는 지금은 주변 지가의 폭등과 함께 상가와 아파트가 증축되고, 많은 숙박시설 및 토산품점이 들어서고,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격포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격포 주변지역의 발전에 따라 급속한 산업사회의 병폐인 이어·이농 현상이 사라지고 주민가구 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증가하는 역 현상이 나타나 옴으로 승격, 검토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은 어항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요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내의 유일한 1종어항인 격포항은 어업기반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서해안 시대의 한·중 수교를 맞아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격포에서 6km 떨어진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항 개발의 완공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첫단계인 방조제 공사가 옥구군 신시도까지 연결 축조될 경우 94년도부터 부안군 일부와 김재군 전 해역의 어항이 폐쇄되어 사실상 대체항이 없어짐으로써 보다 더 많은 어선이 격포항을 이용하게 되어 투자 효과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유대강화로 공사 순조롭게 진행

어느 해변 현장이나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에서부터 냉담하

고 비협조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타 지역에 비하여 이 곳은 유난히 지역이기주의적 성향이 농후하여 진정서, 투서등 민원이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암담했다.

그러나 공사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헌신 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특히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어항개발만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을 일깨워 주민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유대를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공사로 인해 파생되는 경미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지역발전협의회'를 결성시켜 지역주민과 시공회사가 모든

문제를 협의 해결함으로써 공사가 순보름게 진척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성원으로 시공회사에서는 백년대계의 공사라는 사명감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는 몇몇 유지분들에게 진심으로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공사 추진에 남모름 고충도 많아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로 민원 불편사항은 해소되었다 하나 공사수행에 남모름 고충도 비일비재 했다.

초창기 발령을 받아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만조시에 동네 앞 도로까지 물이 들어오고, 작업장 부지와 방파제 시점까지 진입도로가 없어 암담하기만 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지,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특히 평균 5m가 넘는 조수간만의 차와 한 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수중 잠수부 작업이 최악의 조건으로 등장하였으며, 조수시간을 감안, 밤을 새우며 공사를 강행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또한 서해안 모든 어항공사



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해상장비의 접·이안을 비롯하여 물양장 터파기 공사와 방파제치 및 방파제 경사면 사석고르기와 T·T·P 거치 등은 물때를 맞추어 공사를 하게 된다.

사석자동차 육상 운반 투하시 평균 해수면(+).3.5m를 기준으로 하여 육·해상으로 분류하여 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최고 만조위가 약(+).6m로 실질적으로 육상 운반 투하는 만조위 이상인 상치콘크리트 바닥면이 (+).6.5m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점은 재검토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절을 가리지 않고 물려드는 관광객으로 방파제, 물양장등 공사진행에 애로가 많았으나 올해부터 수산청 청

원경찰이 배치됨으로써 질서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신도시 건설붐에 따라 관급시멘트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몇일씩 작업이 중단되는가 하면, 건설인력의 고갈로 공기에 쫓겨 수 많은 고충을 당했던 일은 모든 현장의 공통 사항이라 생각된다.

93년도에는 관급시멘트와 모든 자재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태풍이나 해일이 없는 한 해가 되어 전국 어항 현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완전한 공사가 진행되길 빌며, 수산청 어항관계자와 어항협회 임직원, 그리고 모든 어항 건설기술인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4